



청년, 세상을 짓다

100명의 젊은이들, 그 뜨거웠던 1년의 기록
(POSCO 대학생 봉사단 2기 사진집)

함께 한 날들

1. 밥대식 및 건축봉사체험
봉사교육워크샵 및 일일 건축봉사체험
6월 30 - 7월 2일 (2박3일) 해비타트 춘천지회
2. Cycling For Habitat 2008 (자전거로 짓는 사랑의 집)
주택의 소중함에 대한 거리 홍보활동
7월 14 - 19일 (5박 6일)
7월14일 - 포스코센터 - 수원
7월15일 - 수원 - 천안
7월16일 - 천안 - 아산지회
7월17일 - 아산지회 건축
7월18일 - 아산지회 - 수원
7월19일 - 수원 - 서울
3. 팀빌딩 & Another story
주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팀원 간의 협동심을 키우고,
해외 봉사활동 준비 및 국내 타 봉사활동
4. 사랑의 집고치기
팀 별로 서울과 군산에서 진행된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
5. Global Village Thailand
7세대 주택 건축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진행
2009년 1월 13일 - 1월 23일 (10박11일)
태국 chonburi 지역
6. 활동발표회
프로그램 경험 나누기 및 사진전시
2009년 2월 23일 포스코 센터



Mission Statement

Habitat for Humanity works in partnership with God and people everywhere,
from all walks of life, to develop communities with people in need
by building and renovating houses so that there are decent
houses in decent communities in which
every person can experience
God's love and can live and grow
into all that God intends.

Habitat for Humanity

해비타트의 사명

해비타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각계 각층의 모든 사람들과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을 위한

집짓기와 집고치기 사업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해비타트는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동네의

안락한 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도록 도와 준다.

‘77’
古



dream

'beyond'의 이 끝으로 하나의 끝을 치어 버린 순간!



▲ 2008년 6월 30일, 잊지 못할 우리의 첫만남이었습니다.



어색하기도 했지만 'beyond'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꿈을 꾸며 설레었습니다. ▲

‘소토’
오



자전거로 짓는 사랑의 집

'자전거로 짓는 사랑의 집'은 일주일간 싸이클링을 하면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해비타트 주택건축기금을 마련하고
해비타트 운동을 홍보하는 프로그램

Cycling For Habitat 2008





여름,
꿈, 다시 만나다.

뜨거운 여름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의 꿈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페달을 밟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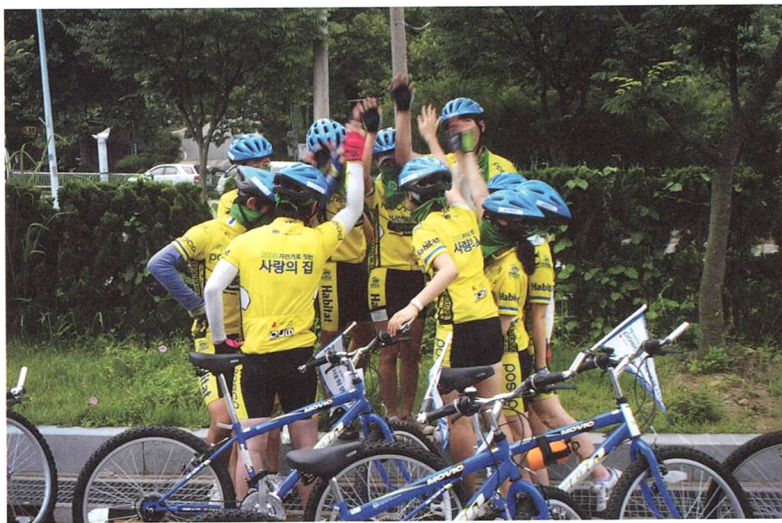
지쳐 주저앉고
그만 포기하고

싫은
싫은

순간에도,
순간에도,

우리는 함께 했기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던 길 위에서 만난 것은,
함께여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우리의 작은 노력에 함께 마음을 나눠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점음,
열정,
패기.

사랑을 하는 것, 큰 사랑을 보여주는 것, 실천하는 것.



사람은 누구나 꿈을 꾸며 살아간다. 세상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이상을 꿈꾸며 사느냐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우리에겐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누군가에게 절실한 꿈이 될 수가 있고, 실제로 그렇다.

우리 Posco-Habitat 대학생 봉사단 Beyond 2기생들의 가장 큰 목표는
그러한 사람들의 꿈이 조금이라도 실현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체 왜 우리는 노란 싸이클복을 입고 힘든 싸이클을 했으며,

대체 왜 수많은 분들은 우리를 돕기 위해 고생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것일까?

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수원역 앞에서 단체로 안무를 하고,
노래를 부르며 우리가 준비한 여라가지 플래카드를 흔들며 목이 터져라 소리쳤던 것일까?

비록 잠시만 민망하고 잠시만 힘들면 되는 일들이었지만 우리의 이러한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의 꿈을 실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날 함께 했던

우리 Posco-Habitat 대학생 봉사단 Beyond 2기생들은 열면, 백번이라도

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야말로 젊음과 열정, 패기로 뭉친 우리 Posco-Habitat

대학생 봉사단 Beyond 2기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된다.

올 여름, 자랑스런 태극전사들의 멋진 활약에 오래간만에 모두가 하나 되어

기뻐하고 뜨겁게 달아오를 수 있었지만, 우리 Posco-Habitat

대학생 봉사단 Beyond 2기생들은 이미 하나 되어

뜨거운 열정을 함께 나누었다.

사랑을 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러한 큰 사랑을 보여주는 것,

실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힘든 일일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우리는 이제 겨우 한걸음 내딛었다.

그러나 그 누가 말했는가. 시작이 반이라고....

- 정다운





꿈...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망치를 들었습니다.
작은 힘들이 모여 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절로 힘이 납니다.

사랑의 집 고치기;

겨울의 문턱에서 혼자이기에

더욱 추울 그들을 위해

우리는 모였습니다.

깨진 창으로 들어오던 바람이 멈추고,

차갑던 바닥이 따뜻해지듯

그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온기와

꿈을 나누었습니다.





‘행복,’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Global Village



Shaping a Better Tomorrow

POSCO Youth Volunteer

Thailand January 13 ~ 23, 2009

Habitat for Humanity Korea · POSCO · Community Education Korea

“추운겨울,
다시만난
우리는
행복을
꿈꿉니다.”





Global Village Program

현지 주민 및 홈파트너와 함께 집을 짓고 타 문화를 체험하며
안락한 집의 필요성을 널리 인식시키는 일 등 전세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기자원봉사 프로그램





Global Village

1월의 여름, 계절이 바뀐 그곳에서 우리는 행복을 꿈꿉니다.
야자수만 무성한던 곳 - 허허벌판, 작열하는 태양아래 모래바람만 날리던 곳 -
이 땅을 축복하며, 이 땅위에 살게 될 그들을 축복하며 땀 흘리던 시간은
당신들의 행복을 위한 것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새 집이 완성되어가고 당신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함께 나누고 노력했던 시간들이 어느새 당신들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당신들의 행복을 우리의 행복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한 가 족 이 되 었 습 니 다 .









땀

이 땅을 축복하며 땀 흘리던 시간들이,



당신

당신들의 행복을 위한 것인 줄만 알았던 순간들이,







행복

어느새 나의 행복으로, 우리의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집이
완성
되고,





기쁨, 행복, 감사.

기뻐하는 당신들을 보는 우리의 마음도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되어 흘러내립니다.

A close-up photograph of a group of young people. In the foreground, a man with a black beanie and a yellow shirt is smiling broadly, showing his teeth. He is making a hand gesture with his right hand, pointing his index finger towards the camera. Behind him, a woman with dark hair and bangs is also smiling. To the right, another person's head is partially visible. The overall mood is joyful and energetic.

너와 나,



우리의 얼굴을 떠나지 않던 미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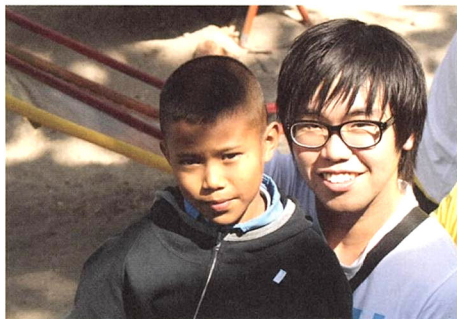


말이 통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마음을 나눌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마음을 나누다







친구가 되어,
함께 했던 시간을 영원히 기억할 것 입니다.





서로를



기 억 하 다



감동,
사랑,
인연.



GV Thailand. 그 달콤한 여정을 마치며

정신없이 돌아가는 쳇바퀴 속의 생쥐처럼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고자
학점에 얽히고 자력증에 매달리며 인간관계에 지쳐갈 때쯤 Beyond봉사단을 신청했다.
지금에 와서 솔찬히 말하자면, 좋은 의도보다는 지친 나에게
새로운 탈출구를 열어주고자 했던 일종의 이벤트였다.
그러나 이 활동이 내 인생의 새로운 터닝포인트를 잡게 해줄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GV의 들뜬 여정을 앞두고 비행기 안에서 쓴 나의 바람이었다. "내나 이 스물셋, 그야말로 청춘.
자유로운 새와 흐르는 물줄기 그리고 미풍에 실린 바람결 처럼 내안에 많은 것을 담아가리라"

느껴 지 는가.

아직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진다.
이것을 단지 며칠간의 기분 좋은 경험이라고 표현하기엔 부족하다.
뒤늦게 사진을 정리하며 코끝이 찡찡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한단 말인가!
사진 속 우리들의 모습은 그저 천진난만하다.
마치 지난날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순수한 그것과 흡사하다고 느낄 만큼 해맑고 순수하다.
결국,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참여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한 것들과 상관없이 봉사안에서 나눔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다보니
결국엔 자기 자신까지 변화시키게 되었으니 처음 의도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싶었다. 우하하하하

잊을 수 없다.

아니 가슴에 새겨놓았다. 태국 현지인들의 꾸밈없는 모습과
아깽이는 사랑 그리고 새로운 인연들. 또 이 모든 것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분주하게 뛰어나며 고생하셨던 스텝 분들과 간사님들, 그리고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던
팀장님과 이러한 기회를 주신 포스코 & 해비타트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가장 자유로운 대학생 시절, 어쩌면 남들처럼 책에 코묻고 있을 우리에게 경이로운 일들을
별일 기회를 주셨으니 말이다.

이제 곧 봄이 다가오면, 어떤 이는 새 학기를 맞이하고 다른 이는 사회로 뛰어들
준비를 하겠지만 우리 모두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삶의 여정 안에서도 순수하고
꾸밈없었던 그때를 잊지 않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어쭙잡은 글 솜씨로 그 순간의 감동을 적어 내기엔 턱없이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이 글을 읽는 이들 중 한명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일으킬 수 있다면 이토록 두서없이
글을 쓰는 것이 전혀 무의미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대를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다음 Beyond 3기 봉사단들도 이 얼마나 달콤한지 맛보길 바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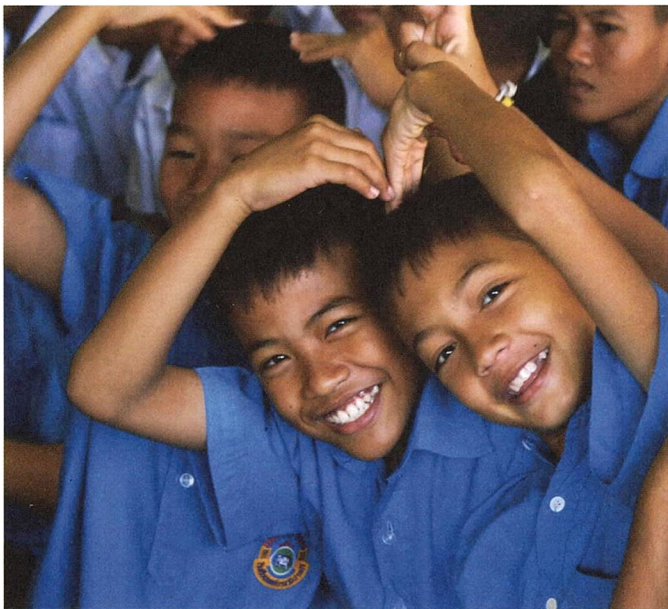
소망





당신 의
그 웃음이
계속 되기를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창한
이유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내 옆에 있는 당신의 그 웃음이
계속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여전히 꿈을 꿉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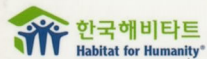


beyond
now,
beyond
here!





너무나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에 행복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전세계의 모든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것,
이것이 해비타트의 꿈입니다.



posco



사랑의얼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신당1동 393-38 대금빌딩 5층 (100-832) 한국해비타트 지구촌 프로그램 담당자
Tel : 02-2267-3702 (#402, 404) Fax : 02-2272-1067